

시론 IMF 극복의 지혜 ⑦

역사를 새로 쓰자

지난 겨울내내 우리는 금융과국으로 인한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새 봄이 왔다고 해서 그 충격은 덜어지지 않는다. 그러는커녕 이제부터 그 위기의 장기적인 실감은 우리 모두의 뺨속까지 파고들 것이 틀림없다. 이런 위기와 함께 태어난 '국민정부'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땀과 눈물 그리고 고통을 요정하는데 서슴치 않고 있다.

IMF 이전에도 우리사회는 IMF 이전의 우리란 누구인가. 이미 그 우리야말로 IMF 아니라도 다른 커다란 위기를 불러 일으킬 징후는 사회 도처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우리 사회는 아주 많이 썩어 있었고 과장되어 있었고 거저이 진실을 압도하고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다.

IMF 이전에도 우리사회 썩고 과장되어 있었다

과연 우리가 잘 길은 멀고 험난하기 이를 데 없다. 이런 관에 국제통화기금 제재는 세계경제장치로부터 해방되는 어떤 지혜가 쉽사리 찾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혜라는 것이 일을 미리 내다보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을 당하고 난 뒤의 후회와 같은 것이기 십상이다. 그래서 지혜는 고대이래 패배의 교훈과도 단편적이다.

먼저 이 나라 사정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간의 정부가 아무런 해결도 시도해보지 않은 채 무능으로 일관한 노릇 자체가 심판받을 대상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 정부가 물러나고 해서 모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정부도 정부지만 이 나라 전문지식인 특히 경제이론들은 그간 경제학자들의 양산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금융위기의 도래를 예측하지 못한 일도 끔찍하다.

언론은 또 어떠했나. 매일매일 그 잘난 소리를 토해내는 언론이 이런 참변이 있기까지 언론 자체의 태도화에만 여념이 없었을 뿐 아무런 전망이나 예감도 없이 앞서 당하고 만 것이다. 이만저만한 엉터리가 아니다. 사회는 사회대로 나날이 부황해지고 있다. 하루아침에 파산선고를 감수해야 했다. 이렇게 된 이상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기에 도망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대로 침몰되거나 국내외적 미아가 되어 유리방황할 수 없다.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기 이전의 그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님을 뺨속까지 통감해야

한다. IMF 이전의 우리란 누구인가. 이미 그 우리야말로 IMF 아니라도 다른 커다란 위기를 불러 일으킬 징후는 사회 도처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우리 사회는 아주 많이 썩어 있었고 과장되어 있었고 거저이 진실을 압도하고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다.

정치 경제가 그랬고 문화도 그랬다. 종교라는 것도 대형화되는 것만 좋아했고 진정한 종교의 목적은 어디에도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모든 사회 총체의 위중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짐작할만한 자각도 결여되기 십상이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자화상을 통해서 어떻게 이 난세를 이겨낼 지혜가 나올 수 있겠는가. 오직 한가지, 우리는 여기에 풀썩 주질러 앉아 버릴 수 없다.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일어서서 우리의 길을 가야한다.

가치 없으면 우리의 길도 더 이상 우리의 길이 아니다. 길이란 수행의 길이기도 하고 하나하나가 변화하는 삶이기도 하다. 그 길은 환한 지혜로 밝혀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미혹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다. 그런

길을 비추어줄 작은 등불이라는 것도 여기저기 걸려있는 가로등들이 아니라 저 스스로 빛을 내야 하는 자등명(自燈明)의 길이다.

自燈明의 의지로 어둠과 미혹 헤쳐가자

아마도 우리가 현대사 최대 위기국면 중의 하나인 이 사태를 기어이 벗어날 수 있는 한 그것은 (質)까지 잘못 살아온 역사의 질(質)을 근본적으로 교정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 쓰는 역사의 내일을 낳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구제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히 기득권층의 여전한 이기주의와 반역사적 수구현상을 비롯한 사회 각계 각층의 소아적(小兒的)인 안보를 그대로 온존한 채 어떤 지혜도 없으나마나이다.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다.



고은 (시인·본지 논설교문)

열린마당

지방국립박물관 지자체 이관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9개 지방국립박물관의 지자체 이관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지방화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이라는 찬성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새 정부의 문화실종이라는 반대의 견도 거세다. 특히 한국문화미술사학회 등 13개 학술단체가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앞세운 줄속행진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국립박물관의 지자체 이관을 둘러싼 정부조직개편위와 지방국립박물관장, 지방문화원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지방국립박물관을 지자체에 이관한다는 것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상충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비추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각 박물관은 경제적 측면에서 각종 현안사업에 밀려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측면에서도 모든 매장문화재는 국가소유인 관계로 지방박물관에 보관 중인 문화재를 중앙박물관으로 이관해야 하며, 이로 인해 중앙박물관은 보관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또 전시중인 국가소유 문화재를 중앙에 반출해야 하는 지방박물관은 대표적인 유물이 없어 상설전시기능이 약해지고 특별전시도 수준이 떨어질 것이 하되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지방박물관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원래의 의도와는 상반된 결과를 낳는 것이다. 자칫하면

유물이나 국보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국가의 재산이다. 어떤 재산이나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선조들의 유산인 것이다. 국가적 가치가 있는 유물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국립박물관은 국립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국가에서 관리 지원해야 한다. 이런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력이나 문화재에 대한 인지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들은 문화재에 관해서 국가가 전문적으로 다루고 투자하는 것에 비해 성이나 금지가 아무래도 약할 것이다. 고속철도의 경우와 달리 경매장, 골프장 건설 등 우리 문화유산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보다는 지역발전이라는 표제로 개발정책에 급급해왔던 지자체의 실정을 보더라도 과연 지자체에서 박물관을 제대로 운영하고 투자할지 의심스럽다. 문화유산은 복구나

“관리 전문인력 부족 박물관 기능상실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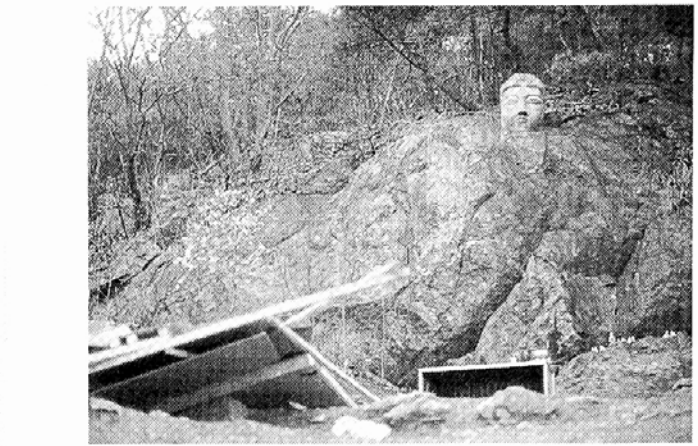
황수영 <前 국립중앙박물관장>

매장문화재의 지자체 이관이라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둘러싸고 각 기관간의 이해대립으로 번져 문화재관리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방박물관의 지자체 이관은 전문인력의 결여로 인한 박물관 기능의 상실과 문화재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문인력들은 신분보장이나 업무 고유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직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연구직에 전문성과 경험이 없는 인사들로 충원하게 돼 박물관 고유기능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이와같이 지방국립박물관을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좀더 신중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우선 이 안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공청회를 개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문화재 훼손 제동장치 없어진다”

안승모 <국립대구박물관장>

하면서 박물관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로 이관되면 박물관장도 단체장이 임명하게 돼 문화재 파괴의 제동장치가 없어지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문화재 파괴가 가중될 것은 불을 뽕듯 뻔하다. 지자체로의 이관이 박물관과 지역주민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요 안다. 물론 지방박물관의 주인은 해당 지역주민이다. 지난해 국립대구박물관은 국립박물관의 지자체 이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적이 있다. 4백99명의 의견을 들은 결과 반대가 50%로 찬성 27%보다 2배나 많았다. 새 정부는 문화정책에 있어서 좀더 신중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우선 이 안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공청회를 개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지방국립박물관의 지자체 이관은 문화재 관리의 혼란을 초래할지 지방문화의 활성화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 사진은 지자체의 보호 손길이 미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하남시 금암산 마애불상.

국립중앙박물관을 제외한 경우가 9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려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제안은 지방에 위치한 시설은 지자체가 관할한다는 지방화시대의 보편적 추세를 따른 것이다. 더욱이 지자체가 자리잡아가고 있고 문화의 지방화를 촉진시켜야 할 시점임을 감안하면 당연히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문화재보존보다 개발을 원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관리를 지자체에 이관하기만 하면 문화재의 훼손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개발과 보존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화재 관리에 관한 법집행에 달리지 관리주체가 지방이나 중앙이냐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각 지역의 향토사학자나 문화재예호자들이 앞장서서 지역주민을 이

세계 문화정책의 모범이 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박물관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담당한다. 문화재관리가 지방으로 이원화되면 조정이 어렵고, 프랑스의 중앙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루브르박물관 내에는 최고의 박물관학교가 있어 상당수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역대적으로 왕이나 대통령이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세계 최초로 문화부가 설치됐으며, 문화부 내에 박물관국이 따로 편제돼 전국의 박물관을 총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프랑스의 현실과 이상에 맞게 잘 구성, 유지되고 있다는 평이다. 전국의 국·도·시립박물관들은 중앙의 재정 및 인력지원을 받고 있는 등 중앙의 지도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방국 체제의 영국은 박물관정을 두어 중앙뿐 아니라 지방정

“문화유산 보존 재정적 뒷받침 필수”

장영석 <부여문화원장>

재정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나마 보존처리과정도 전문적이어서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도 필수적이다. 지자체가 재정력과 문화재에 대한 관리인력 등을 보장하더라도 각 지역 국립박물관의 지자체 이관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 자체가 사적 문화재 등을 지역 소유나 지자체의 재산이 아닌 국가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만큼 박물관도 중앙정부 조직으로 있어야 한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나라의 역사 속에 각 지방의 향토사가 있는 것이다. 문화재는 그 문화재가 출토된 곳의 소유물이 아니다. 유물 역시 지방의 유물이 아닌 우리 국민 전체의 유물이 아니다. 이 점을 생 각한다면 이들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국립박물관은 당연히 중앙정부의 관리하에 예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앙-지방 균형적 문화발전 위한 정책”

서필연 <정부조직개편위 과장>

풀어 나간다면 중앙정부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화재들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재 각 지방박물관들이 겪고 있는 예산, 시설, 전문인력 등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것이 선행 과제라는 말도 나온다. 현재 수준의 유물전시나 발굴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 걱정하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예산과 전문인력을 보조해 주는 방안을 찾아 나간다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을 무작정 유보만 시켜서는 안된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99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듯이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인 문화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문화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지방박물관의 전문인력 확보, 재정적 뒷받침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곧 가시화될 것이다.

“박물관학교 등 설치 관리능력 우선 제고”

정준성 <문화정책개발연구원>

부 및 자치정부의 박물관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정부에 박물관서비스연구소가 있어 박물관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주요 유적지나 할 수 있는 도쿄·나라·교토·오사카·치바에 5개의 국립박물관을 두어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기술적 수준이 우리보다 월등히 앞선 선진국들의 예를 보더라도 급하게 지방국립박물관을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우리 정부의 문화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우선 박물관학교나 학예관제도를 정립, 우수한 전문인력을 배양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가 박물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뒤에 결과를 보아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2천만의 깨달음을... 현대 불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관음출판사... 임기 쉬운 문답식 사주학 지침서 命理學 萬問萬答... 사주학 핵심비결,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古典풍수학 설심부... 관음출판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4 광성빌딩 전화: 921-8434 팩스 929-3470

일·심·석·재... 다양한 석재물을 만들어온 28년의 경험과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으로 현재까지 정성으로 조성하고 있사오니 언제 어디서든 문의주시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공 장 : T)0653-53-7527 F)0653-53-7527 자 택 : T)0653-833-4850 휴대 폰 : 011-673-7527 BB : 012-672-7527 대표 김 옥 수 합장